

‘바다 위 F1’ 美 오라클팀 USA호 18년만에 우승



미국 '오라클팀 USA' 호가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19번째 경주에서 피니스 라인을 1위로 통과하며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뉴질랜드 '에미레이트팀 뉴질랜드' 호가 뒤따랐다. '바다 위의 F1'이라 불리는 아메리카스컵은 162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요트대회이다. 미국은 1851년 1회 대회부터 1983년까지 132년동안 아메리카스컵을 놓치지 않고 최강국으로 군림했다. /연합뉴스

기록의 사나이 '秋'

300출루 -4



메츠전 불넷 2개 추가... 296차례 출루

‘기록의 사나이’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시즌 300 출루라는 또 다른 기록에 4개를 남겼다. 추신수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불넷 2개를 얻어냈다. 이로써 추신수는 시즌 안타 160개, 불넷 111개, 몸에 맞는 볼 25개를 합쳐 296차례 출루를 기록해 '300 출루'에 바짝 다가섰다. 메이저리그에서 역대도 20홈런-20도루-100볼넷-300출루 기록을 단일 시즌에 달성한 예는 올해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까지 합쳐 총 11명에 불과하다. 3년 만에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는 내셔널리그 톱타자로는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100볼넷-100득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일본인 선발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를 맞아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삼진, 6회에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회에는 불넷, 8회에도 바뀐 투수 페드로 칼리시아노에게서 불넷을 골랐다. 신시내티는 8회 2사 2,3주 찬스에서 조이 보토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힌 바람에 메츠에 0-1로 패했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86, 출루율 0.424를 기록하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결정지었으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2위에 머문 신시내티는 28일부터 와일드카드 1위 피츠버그와 정규리그 최종 3연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가을잔치’ 내달 8일 시작... 호남팬 어느팀 응원할까



KBO, 준PO·PO·KS 일정 확정 KIA 내달 4일 넥센과 시즌 최종전

KIA 타이거즈가 10월 4일 넥센과 시즌 최종전을 갖는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6일 우천순연된 4경기에 대한 잔여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재편성된 4경기는 내달 4~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잔여경기 일정 발표 이후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는 예비일로 우선 편성된다.

지난 8월 29일 우천취소됐던 KIA와 넥센의 홈경기는 10월 4일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KIA는 내달 2일 SK, 3일 두산에 이어 4일 넥센과 안방에서 경기를 갖고 올 시즌을 마감한다. '가을 잔치'는 10월 8일 시작된다. 8일 페넨트레이스 3·4위 팀 맞대결인 준플레이오프(5전3선승제)가 시작되며, 16일부터 22

일까지는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가 진행된다.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24일 첫 승부를 시작해 7전4선승제로 열린다. 6차전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11월 1일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진다. 페넨트레이스 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돼 예정된 포스트시즌 경기 일정과 중복될 경우, 페넨트레이스 종료일과 준플레이오프 1차전 개시일 사이 최소 1일의 이동일을 두고 재편성할 수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과 관계없는 순위 팀의 경기가 연기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포스트시즌 일정이 시작된다.

포스트 시즌 연장전은 15회까지로 진행되며 연장전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무승부로 처리된다. 무승부가 나올 경우 각 시리즈별 최종전이 끝난 후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에서 이동 없이 연전으로 승부를 가린다. 무승부가 발생한 경기의 홈팀이 홈구단이 되며 한 시리즈에서 2 무승부 이상 발생시 1일 이동 후 연전으로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경기는 평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2시 경기로 치러진다.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계일정은 추후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 발 부상

그랑프리 출전 포기... 올림픽 2연패 차질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발을 다쳐 올 시즌 국제 빙상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6일 "김연아가 훈련 중 오른쪽 발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얼마전 검사를 받은 결과 중족골(발등과 발바닥을 이루는 뼈)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2013-2014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10월 25~27일·캐나다 세인트존)와 5차 대회(11월 15~17일·프랑스 파리)에 모두 불

참하게 됐다. 이 대회를 통해 김연아는 2009-2010 시즌 이후 모처럼 그랑프리 시리즈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불의의 부상으로 무산됐다. 김연아는 새 프로그램 주제곡으로 쇼트 프로그램은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A Little Night Music) 삽입곡인 '어릿광대를 보내주오(Send in Clowns)'를, 프리 스케이팅에서는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아 오스 노니노(Adios Nonino)'를 선택해 맹훈련 중이다. /연합뉴스

윤석민 국내 잔류냐, 빅리그행이냐

시즌 끝나면 FA자격... 9년 몸담은 KIA와 작별 할 수도 부상 여파·성적부진 등 가치 하락에도 빅리그 입성 시도

요즘 KIA 윤석민의 마음이 복잡하다.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민에게 이번 가을은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다. 오는 10월4일 넥센과의 시즌 최종전이 끝나면 윤석민은 FA(자유계약) 자격을 얻으면서 자유 신분이 된다. 바라던 대로 해외진출의 꿈을 이루게 된다면 4일은 KIA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야구선수로서 가장 바라던 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설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승에 대한 꿈이 꿈으로 끝나면서 입맛이 쓰다. 윤석민은 "올 시즌 가을야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팀이 4강에 오르고 또 한국시리즈에서 내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가 우승의 주역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부상으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당당히 해외 진출을 하고 싶었던 계획은 틀어졌지만 빅리그 도전은 이상무다. 물론 처음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

왔던 2011년과는 조금은 다른 처지이기도 하다. 윤석민은 "4관왕을 했던 2011년과 올 시즌 성적이 다르다. 그때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 가치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팀들도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안다. 프로에서의 9년이라는 시간과 경험을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올 시즌 자신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빅리그는 윤석민의 경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팀의 에이스이자 위기에는 마무리로 활약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무엇보다 큰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빅리그 진출을 위한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짜여지고 있다. 대만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전후로 해 빅리그 스카우트들이 윤석민을 점검하고 있고, 에이전트도 본격적인 빅리그 행보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윤석민은 추신수·류현진과 함께 보라스 사단에 속해 있다. 윤석민은 시즌이 끝난 후 1주일 정도 정리의 시간을 갖은 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달 가량 미국에서 운동 등

을 하며 시간을 보낸 윤석민은 일시 귀국해 FA 등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윤석민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은 팀에 집중하고 싶다.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팀이다. 시즌이 끝나고 짐을 챙길 때 기분이 이상할 것 같다. KIA 윤석민이기에 이만큼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남은 시즌 잘 마무리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야구협회장기 전국 고교대회 광주서 열린다

내달 2일 무등경기장서

광주에서 전국 고교야구 대회가 열린다. 제1회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가 오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무등경기장과 함평기아챌린지스피드에서 펼쳐진다. 대한야구협회(회장 이병석) 주최, 광주시야구협회 주관, KIA 타이거즈·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고교야구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야구의 본고장 광주에서 스타트를 끊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전국대회 챔피언인 덕수고, 군산상고 등을 비롯한 전국 30개 팀이 참가해 초대 우승팀을 향한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화순고도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다. 10월2일 오전 10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열전 시작되며, 광주일고와 동성고가 오전 10시30분 대회 첫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안방서 수원 잠을까

내일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광주 FC가 수원 FC를 상대로 열세 만화에 나선다. 광주 FC가 28일 오후 2시 수원 FC를 홈으로 불러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수원과의 올 시즌 전적은 1승2패.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홈 2연승을 달리겠다는 각오다. 미드필드진의 집중력이 이번 승리의 중요한 키다. '중원의 핵' 김은선이 지난 충주전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출장이 불투명하다. 프레이 코치로 책임을 맡게 된 마철준을 비롯한 정정호, 정우인, 오도현 등이 투입될 경우 이들의 호흡이 경기를 끌어가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양 측면에서 뚫었던 김호남과 김준엽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공격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지난 충주전에서 두 선수는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과감한 슈팅과 공간 돌파로 상대 수비를 괴롭혔다. 여기에 '해결사' 루시오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충주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며 10득점을 채운 만큼 포백 라인의 집중력과 2선의 협력수비

가 잘 이뤄진다면 수원전 전망도 밝다. 미드필드 여름의 움직임에도 눈길 쫓는다. 왕성한 활동으로 상대의 볼 줄기를 잘라내고 있는 여름은 빠른 판단과 움직임으로 자신의 약점인 파워를 만회하고 있다. 중원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름은 지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세루 피어외의 1제1 승부에서 절묘한 로빙슛을 터트리며 프로데뷔골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안방에서 만나게 될 수원은 최근 고양과 함께 후반기 돌풍을 일으키며 광주의 3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국내와 공격수들의 잘 짜인 조직력이 돋보인다. 박종찬-임성택-김본광의 삼각편대가 팀 특점을 이상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김현원이 결정적인 순간 팀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수원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유수현이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공격진을 받쳐주고 있다. '해결사' 루시오를 앞세워 2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광주가 여름을 돌아 안방에서 수원을 상대로 2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